

1월, 2월 수학공부 어떻게 시작 할래 ?

올해 고3이 되는 수험생 혹은
한번 더 수능에 도전하기로 확정했거나 고민 중인 학생들에게

지금 이시기에는
수학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Q&A 형식으로 적겠습니다.

이 글이 방향설정에 있어서 일말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문과

문과는 **수학 II** , **미적분 I** , **확률과 통계** 3과목을 보게 됩니다.
문과학생들이 고민이 될 만한 주제들로 문답형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Q1. 수학 I 을 얼마나 해야합니까 ?

A1. 수학 I 에 있어서 80~90% 내용은 당연하게 알고가야하고
숙달되어있어야 하기에, 가볍게 교과서 한바퀴 수준으로 추천합니다.

이미 상위권에 분포하는 학생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중위권이하의 친구들은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다양하게 간접범위를 공부하는 강의가 끝나오거나 얇디얇은 문제집이 있으니
쭈욱 풀어보시길 권장합니다.

Q2. 수학 I 이 해결된 후에는 어떻게 수학을 시작할까요 ?

A2. 수많은 개념강의와 개념서가 존재합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두 개념강의 혹은 개념서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추천합니다.

다만 성적에 따라서

추가로 무엇을 더 풀 것인지

그리고

개념강의 혹은 개념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중하위권에게는 추가로 다양한 연산연습 등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기본문제가 많은 시중 문제집 혹은 EBS 고2과정 문제집을 추천합니다.

그런 기본개념의 활용 및 연산들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속도감이 붙어야,
기출을 풀기시작하고 **기출분석**을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위권은 기출문제집 고난이도에 조금더 초점을 맞추며 수능특강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EBS를 무조건 풀 필요는 없습니다만,
문제를 더 풀어서 나쁠 것은 없으며 기출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것은 모든 개념과 기출문제가 요구하는바가 무엇인지 엄밀하게 해석하고있는

수학초고수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기출을 중심으로 하되 + α 의 문제집은 적절하게 선택하여 개념들이 자꾸 익숙해지고
연산 역시 속도감이 붙도록 연습하길 권장합니다.

Q3. 인강은 누굴 들을까요 ?

A3. 나 안들을꺼면 묻지마세요.

ㅋㅋㅋ OT보고 무료 오픈된 강의를 보고 맘에드는 선생님 들으시면 됩니다.

Q4. 그 다음요 ??

A4.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개념서+기출 → 기출+문제집양치기 → 킬러문항 + 실전모의 → 실전모의 +복습
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너무 계획에 집착 하지말고

눈앞에 단거리 목적지부터 도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과

이과는 **미적분Ⅱ**,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3과목을 보게 됩니다.

이과학생들이 고민이 될 만한 주제들로 문답형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Q1. 수리가형 할까요 ? 나형할까요 ?

A1. 이는 포마스쿨무료인강 youtube 영상을 참고하여 작성됩니다. (<https://youtu.be/OM0NcfDbfIM>)

국어 영어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수학이 심각하다 => **가형 추천**

국어 영어가 심각한데 수학이 더 심각하다 => **나형 추천**

허나 본인이 선택하고 나아가야할 길이기엔
정답이 없는 문제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과 나형이 가능한 최대대학의 범위를 확인할 것

송실대 자연계열2

국민대 자연계열

단국대 건축,건축공,화학공,과학교육

광운대 정보융합, 건축

세종대 항공시스템공, 국방시스템공

명지대 자연계 전체

상명대 자연계 대부분(수학과제외)

등 등

Q2. 간접범위를 얼마나 해야합니까 ?

A2. 이과로 온 학생들이 수학 I, 수학 II 내용들이 부족해서 기본연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적분 I 은 학생들이 이상할 정도로 비어있습니다.

선생님의 미적분 I 초절기교 Part1 (인강 - 2월 예정)도 좋고, 더 급한 친구들은
오르비교재로는 수학의 명작 이 유명하며,
다양한 방식들로 어찌되었든

미적분 I 의 학습은 좀 더 단단하게 해두기를 권장합니다.

Q3. 어떤 순서로 얼마큼 해야할까요 ??

A3. 일반적으로 미적분 II 를 우선시하며, 미적분 II 와 확률과 통계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기하와 벡터로 넘어갑니다. 이 역시 어디가 유난히 약한가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되며
일반적으로
확률과 통계는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무시한채, 문제풀이만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많은 양치기로도 물론 해결이 될수도있지만, 어딘가 계속 틀린다면 한번 더
합의법칙, 곱의법칙부터 교과서적으로 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념공부를 한 후 확률과 통계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 집중적인 시간투자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길 권장합니다.

반대로 미적분 II 와 기하와 벡터는 개념부터 시작하여 깊이있게 공부하시고, 모든 기출문항에 대해서
곱씹으며 되새김질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투자는 국어영어로 따라 다르지만
국어영어로 절대 뒤지지 않을정도로는 투자하는게 맞습니다.

Q4. 그렇다면 간접범위 이후에 무엇을 풀까요 ?(들을까요 ?)

A4. 수리가형 콘텐츠 시장이 나형보다 수배는 더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복잡할텐데요.. **너무 유행따라 책들 구매하지마시구요(안죽습니다)**

위에서 문과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두 개념강의 혹은 개념서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추천합니다.

다만 성적에 따라서

추가로 무엇을 더 풀 것인지

그리고

개념강의 혹은 개념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중하위권에게는 추가로 다양한 연산연습 등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기본문제가 많은 시중 문제집 혹은 EBS 고2과정 문제집 혹은 문제가 많은 유명한 문제집이나 개념서 한권을 더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 기본개념의 활용 및 연산들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속도감이 붙어야,

기출을 풀기시작하고 **기출분석**을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이도가 너무 높은책이 아닌 3점 수준의 문항이 추가되어 미친 듯이 풀면서 개념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위권은 기출문제집 고난이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며 수능특강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EBS를 무조건 풀 필요는 없습니다만,

문제를 더 풀어서 나쁠 것은 없으며 기출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것은 모든 개념과 기출문제가 요구하는바가 무엇인지 엄밀하게 해석하고있는

수학초고수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기출을 중심으로 하되 $+\alpha$ 의 문제집은 적절하게 선택하여 개념들이 자꾸 익숙해지고 연산 역시 속도감이 붙도록 연습하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Orbi 강사이지만 Orbi 교재들은 최상위권이 아니면 당장 지금보다는

여름이후에 추천합니다. (어차피 지금 별로 나오지도 않았을거임.)

Orbi교재 중 검증된 책들은 수능시험에 있어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한해 여러분의 꼭 이루어지는 해가 되길바라며,

그 시작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그럼 다음칼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성민-